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전략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희

(한국교원대학교)

<Abstract>

Lee, Eun Hee. 2015. A Study on Teaching & Learning Methods of Prohibitive Speech Act Strategies in Korean Language: Centered on Strategy Comparison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Chinese-speaking Learners. *Korean Semantics*, 4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the strategies of speech act of prohibition in Korean. To accomplish this purpose, Korean native speakers' strategies were analysed minutely 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e strategie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whose first language is chinese. The noticeable final results are: 1. When the learners prohibit something in Korean, more Moves were used than Korean. 2. Even when the learners intend to prohibit a single person's actions, they talk as though they are speaking to the whole group. 3. When the learners prohibit something in Korean, they sometimes try to use hearer honorific expressions strategically. But they usually use wrong ones. 4. When the learners prohibit something to strangers, they sometimes use greetings like 'kamsahamnida' or 'annyeonghaseyo'. Usages as such sound awkward, because Koreans never talk like this. For learners to affectively accomplish speech act of prohibition by using speech acts appropriately, it is needed to provide the learner with such information and accomplish proper teaching and learning.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 1A5B5A07038967)

핵심어: 화행(speech acts), 전략(strategy), 무브(Move), 금지화행(speech act of Prohibition),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중간언어(interlanguage), 지시(indirect)

1. 들어가기

외국어 교육에서 특정 화행의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모어 화자들이 수행하는 화행에 대해 정밀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금지화행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 또 금지화행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역시 별로 많지 않아, 그 성과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행 교육은 모어 화자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 중간언어에서의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교수 학습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지화행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언어 행위이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금지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관이 없는 학습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는,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화행 수행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어려움은 금지화행에 대한 회피 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은희, 2012, p.3:3-10). 또한 학습자의 어려움은 숙달도와도 관련이 되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화행 교수의 필요성은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급 학습자에게는 간접화행을 포함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지화행이 기대된다. 그런데 한국어 교실에서 익힌 ‘-지 말다’의 명령형, ‘-(으)면 안 되다’의 평서형 정도의 금지 표현으로는 실제로 고급 학습자가 제대로 된 자연스

러운 금지화행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개별 상황과 표현 하나하나를 교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화행 교육을 위해 화행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화행 전략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을 충실히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 기능에 따라 학습자가 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의 금지화행 전략을 정밀히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화행 전략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전통적으로 ‘금지’는 부정 범주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금지 표현은 ‘명령’이나 ‘지시’에 포함되어 다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지화행을 단독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은실(2010)에서는 국어 금지화행의 성립 조건과 범위 및 금지화행을 실현하는 국어 표현에 주목한 바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금지는 주로 ‘부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금지’라는 독립된 범주로 연구한 경우는 김영란(1999: 171~193), 이은희(2012, 2014) 정도이다.

그나마 선행 연구들도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언어 운용적 측면에서의 ‘전략’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이은희(2014)는 구체적인 간접화행의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해, 형태의 유형화는 어려워도 전략의 유형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용빈도 높은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수행 표현을 추출하여 교육 내용 구성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주화행 전략으로 한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발화에서는 주화행 전략 외에 다양한 보조화행 전략이 나타나고 동일한 전략이 주화행 전략과 보조화행 전략으로 모두 사용되기도 하며, 전략은 세부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지화

행을 수행하는 전략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화행 교육에 대해서는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등 외국어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도 참조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중에는 한국어 화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화행과의 대조분석이나 중간언어 대조분석을 시도한 논의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어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용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에 집중하여 충실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다.

금지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발화 행위를 말한다. ‘금지’는 행위 지시의 일종이므로 여기서는 문화 간 화행 실현 프로젝트(CCSARP)에서 사용한 ‘지시 화행 전략’의 틀을 적용한다. CCSARP에서는 지시화행의 간접성을 보여주는 단계와 9가지 하위전략을 제시하는데, 직접화행, 간접화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¹⁾. 이은희(2012,2014)에서는 CCSARP에서 사용한 틀을 한국어 지시화행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어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논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금지화행 전략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1>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이은희,201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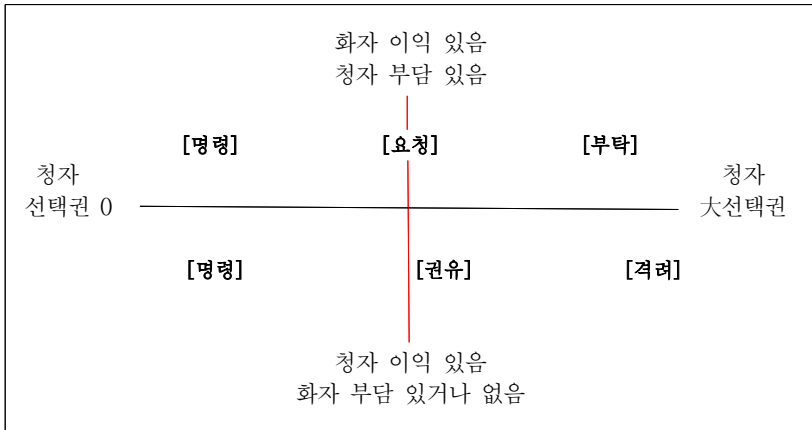
지시 단계	전략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 (The most direct, explicit level)	<1> 서법에 의한 도출 (Mood derivable)
	<2> 명시적 수행 표현 (Explicit performatives)
	<3>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Locution derivable)
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 (The 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4> 화자 의도 언급 (Scoping stating)
	<5> 제안성 어구 (Suggestory formula)
	<6> 예비적 조건 언급 (Reference to Preparatory conditions)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The nonconvention ally indirect level)	<7> 단서 제공(Hints)

1) CCSARP에서 사용한 이 분석 틀은 8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한국어의 지시 화행 전략 연구나 화행의 대조 분석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금지화행의 세부기능 분류는 이은희(2012:21~43)을 따른다. 이은희(2012)는 표현의 세부 기능 분석 ‘기준’에 대해 논하고 柏崎雅世(1993)에서 제시한 척도를 한국어 직접적 금지표현에 적용하였다²⁾. 또 이은희(2014)에서는 柏崎雅世(1993)의 논의를 정밀히 살펴, 간접 표현 기능 분석에도 이 척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간접 표현을 분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이를 금지화행 ‘전략’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금지화행 전략 분석을 위한 세부 기능 및 기능 분석 기준은 <표2>와 같다.

<표2>한국어 금지표현의 세부기능과 기능 분석 기준(이은희,2012)



2) 이 척도는 Leech(1983)의 화용론적 척도를 일본어 지시적 표현에 적용하기 위해, 고정된 표현 형태 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이다.

원문의 내용을 번역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 번역).

“간접성의 척도는 표현 형식을 보다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공손함을 증대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본서에서는 한 표현이 발화에서 행하는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은 고정시켜 생각한다. 따라서 ‘간접성의 척도’를 제외하고 ‘선택성의 척도’와 ‘부담 이익의 척도’를 행위 지시형 표현의 배경적 조건으로 하여 이를 척도로 이용하기로 한다. (間接性の尺度は、表現形式をより間接的(婉曲的)なものに変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丁寧さを増大させることを量る尺度である。本書では一表現が發話においてはたず機能を規定するので、表現は固定させて考える。したがって、間接性の尺度を除いて選擇性の尺度と負担利益の尺度を行爲指示型表現の背景的条件としてスケールに用いることにする。)” 柏崎雅世(1993:31~35)

3. 금지화행 전략 사용 양상 조사

3.1. 조사 도구

먼저 연구 계획 단계에서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³⁾ 상황적절성 조사 및 예비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가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살피기에 적합한지 검토해 보고, 유의미한 조사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설문이나 조사방법, 절차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황적절성조사는 5간 척도로 상황의 개연성을 조사했는데 그 중 한 문항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상황적절성 조사 및 예비 조사 문항 예시

<p>당신은 컴퓨터실 조교입니다. 컴퓨터실에서 게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생이 1시간 넘도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게임을 중단하라고 말하려 합니다.</p>
<p>[상황]</p> <p>(1) 위 상황이 학습자의 한국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전혀 그렇지 않음 --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 만일 ①②번을 골랐다면 그 이유를 써 주십시오.</p> <hr/> <p>(2) 이 상황에서 당신은 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p> <hr/>

이 조사에서는 [명령],[요청],[부탁],[권유],[격려/기원]의 세부 기능별로 상황적절성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실제로 학습자가 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평균값 3.5 이상인 문항을 선정한다. 3.5이하의 응답에 대해서는

3) 예비조사 집단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7인, 한국어교육전공 교수 및 대학강사 5인, 외국어교육전공 교수 3인,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한국어 교사 15인으로 구성된 총 3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들의 주관식 문항의 답변을 참고하고자 했으나 3.5이하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상황적절성 조사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표4> 기능별 상황과 상황적절성 평균값

이익수혜자/ 청자 선택권	상 황	상황적절성평균값
[명령](+화자이익/청자선택권 적음)	컴퓨터실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중단을 지시	4.4
[요청](+화자이익/청자선택권 보통)	영화관 뒷자리 여고생에게 좌석을 발로 차지 말라고 요청	4.6
[권유](+청자이익/청자선택권 조금 많음)	후배에게 수업 중 사용할 자료를 찾기 위해 복사 가게에 들르지 말라고 말함	4.1
[부탁](+화자이익/청자선택권 많음)	직장 상사에게 회식 때 노래를 시키지 말 것을 부탁	3.7
[격려/기원] (+청자이익/청자선택권 아주 많음)	선배에게 과제물 대신제출 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킴	4.2

상황적절성 조사에서 평균값 3.5 이하인 항목은 없었으므로 모든 문항을 본조사의 조사 항목으로 선정한다⁴⁾. 그런데 예비조사 분석 과정에서 화청자 관계 설정 시 ‘친소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금지에는 화청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특정 기능이 잘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⁵⁾, 본고는 본조사 설문 문항을 재구성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하였다. 최종 구성된 본조사 설문은 <표5>와 같다.

- 4) 다만 상사에게 노래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평균값이 조금 낮았는데, 한국어교육기관 교사들의 응답에서 특히 낮았다. 이들의 교육 대상은 취업 목적 학습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다양하므로 이 문항도 본조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5) 이론적인 경우의 수로는 기능에 따라 변인별로 모든 금지 상황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친한 관계에서는 [명령]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소원한 관계에서는 [권유],[부탁],[격려]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은희(2012)를 참조할 수 있다.

<표5> DCT 설문 상황 및 상황적절성 평균값

이익수혜자/ 청자 선택권	번호	친소	상 황	상황적절성평균값
[명령] (+화자이익/청자선택권 적음)	1	소	컴퓨터실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	4.4
[요청] (+화자이익/청자선택권 보통)	2	친	후배에게 동아리방 벽에 사진 붙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상황	4.1
	3	소	영화관 뒷자리 여고생에게 좌석을 발로 차지 말라고 요청하는 상황	4.6
[권유](+청자이익/청자선택권 조금 많음)	4	친	후배에게 수업자료 찾기 위해 복사가게에 들르지 말라고 하는 상황	4.1
[부탁] (+화자이익/청자선택권 많음)	5	친	직장 상사에게 회식 때 노래를 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는 상황	3.7
[격려/기원](+청자이익/청자선택권 아주 많음)	6	친	선배에게 과제물 대신 제출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는 상황	4.2

3.2. 결과 분석

이 조사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대상의 본조사는 20대~30대의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5>의 상황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DCT를 실시하였다. 연령을 20대~30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어 학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30대 남성에는 회사원도 일부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간언어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급 수준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화자에게 실시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을 최소화하고자 동일언어권 학습자인 중국인 학생 70명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화행 전략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금지화행에 사용된 MOVE(이하 ‘무브’) 수를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어 화자들의 기능

별 전략 사용 패턴 및 특징을 살펴본 후,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전략과 비교하여 금지화행 전략의 교수 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3.2.1. 금지 화행에 사용된 무브 (MOVE) 분석

‘무브(MOVE)’란 본래 서양의 체스에서 말을 쓰는 방법 또는 행동 방법이나 모양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회화 분석에 원용되어 상대방에 대한 작용 즉 질문, 의뢰, 거절 등 행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熊谷智子, 1997)⁶⁾. 본고 역시 ‘금지’라는 행위적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발화에서 무브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발화 기능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 화자들이 기능별로 사용한 무브 수를 살펴, 기능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화자들이 한국어 금지화행을 수행할 때 기능별로 또는 성별로 어떻게 무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중간언어에서의 무브 수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화자 대상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특징적인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화행 세부 기능 및 상황별로 사용된 무브 수는 다음과 같다.

6) 어떤 행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문법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표6> 금지화행의 세부 기능 및 상황별 무브 수

세부 기능	상 황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	
		무브 수 평균	성별 무브 수 평균	무브 수 평균	성별 무브 수 평균
[명령]	컴퓨터실 게임 금지하기	1.72	여: 1.85 남: 1.60	2.35	여: 2.2 남: 2.5
[요청]	동아리방 벽에 사진을 붙이지 말도록 말하기	2.21	여: 2.40 남: 2.02	2.05	여: 2.1 남: 2.0
	극장 뒷자리 사람에게 의자 차지 말도록 말하기	2.09	여: 2.09 남: 2.08	2.18	여: 2.1 남: 2.27
[권유]	복사 가게 들르지 말도록 말하기	2.36	여: 2.65 남: 2.11	2.58	여: 2.77 남: 2.4
[부탁]	노래방에서 노래시키지 말도록 부탁하기	2.89	여: 3.44 남: 2.34	3.03	여: 3.2 남: 2.87
[격려/기원]	과제물 대신 제출에 대해 안심시키기	2.18	여: 2.05 남: 2.32	2.78	여: 2.85 남: 2.72

한국어 화자들이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사용한 무브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까지였는데, 평균값을 비교하면 세부 기능에 따라 사용된 무브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부탁]기능 수행 시 가장 많은 수의 무브(2.89)를 사용하며, [명령]기능 수행 시 가장 적은 수의 무브(1.72)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요청][권유][격려/기원]기능에 사용된 무브 수는 서로 비슷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까지의 무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인과 동일하게 [부탁]에서 최다 무브(3.03)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인의 사용보다 더 많은 수이다. [부탁]에서는 한국인이나 중국인 모두 이유 설명, 공손성 표현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므로 무브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브 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부탁] 외에 다른 기능에서는 사용 빈도의 순서가 매우 다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들과 달리, 친한 후배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은 수의 무브(2.05)를 사용하였다. 또 한

국인들은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금지를 [명령]할 때 발화를 짧게 하는데 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 경우 [요청]보다도 길게 발화하였다.

기능별 사용 무브 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기능별 무브 사용 빈도

	기능별 무브 사용 빈도
한국어 화자	[부탁]>[권유]>[요청(친한 관계)]>[격려/기원]>[요청(소원한 관계)]>[명령]
학습자	[부탁]>[격려/기원]>[권유]>[명령]>[요청(소원한 관계)]>[요청(친한 관계)]

무브 수 분석 결과,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무브 사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독특한 현상이 발견되었다⁷⁾. 한국어 화자들은 대부분의 세부 기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씩 더 많은 무브를 사용하였고, 특히 [부탁]일 때 여성은 남성보다 1개 이상의 무브를 더 사용하였다. 남성도 다른 기능에 비해 [부탁]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수의 무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성의 경우 [격려/기원]기능에서 [부탁]과 비슷한 정도로 많은 무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걱정하지 마’가 주로 나타나는 [격려/기원]의 발화에서, 여성들은 다른 기능(명령 제외)을 수행할 때보다 적은 무브를 사용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남성들은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보다 더 많은 무브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수의 무브를 사용하는 것은 [격려/기원]일 때가 유일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발화 뿐 아니라 청자를 배려한 [격려/기원]을 할 때 발화 양이 많아진다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요청]기능 수행 시, 여성 화자는 친한 관계일 때 더 많은 발화를 하고, 남성 화자는 소원

7) 한국어교육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화행 전략이나 기능의 선호도 분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화행론 차원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의 실제 화행 현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도 언어교육임을 고려할 때, 언어교육을 비롯한 응용 학문은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충실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할 때 더욱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석 역시 논의에 포함하였다.

한 관계일 때 더 많은 양의 발화를 하는 경향도 살필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의 성별에 따라 무브 수가 많이 나타난 기능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한국어 화자 집단의 성별 무브 사용 빈도

기능별 무브 사용 빈도	
여성	[부탁]> [권유]> [요청(친한 관계)]> [요청(소원한 관계)]> [격려/기원]> [명령]
남성	[부탁]> [격려/기원]> [권유]> [요청(소원한 관계)]> [요청(친한 관계)]> [명령]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 나타난 기능별 무브 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어 화자들은 [격려/기원]을 제외한 다른 기능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무브를 사용한 데 비해, 학습자 집단은 [명령],[요청(소원한 관계)]일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수의 무브를 사용하였다. 또 중국인 여성 학습자들은 [격려/기원]에서 [부탁] 다음으로 많은 무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성 화자들(한국인, 중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표9>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성별 무브 사용 빈도

기능별 무브 사용 빈도	
여성	[부탁]> [격려/기원]> [권유]> [명령]> [요청](소원한 관계=친한 관계)
남성	[부탁]> [격려/기원]> [명령]> [권유]> [요청(소원한 관계)]> [요청](친한 관계)

3.2.2.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분석

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어 금지화행

에 사용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전략을 기능별로 살펴보고, 전략의 특징 및 전략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

전략은 금지화행 수행에 주된 역할을 하는 주화행 전략과 화행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단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화행 전략으로 나뉘어 살펴본다⁸⁾. 전략의 사용 패턴 분석은 세부 기능 수행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 세부 기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 [명령]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컴퓨터실에서 학생에게 게임 금지시키기 이 상황은 공적인 관계에서 명백히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을 금하여 [명령]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때 한국어 화자들이 가장 선호한 전략은 원칙을 제시하여 금지하는 ‘발화의미로부터의 도출’이며, 96명의 응답자⁹⁾ 중 35명이 사용했다(36.5%). 그리고 여성이 24회, 남성이 11회로 여성이 더 선호하였다. 두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략은 금지부사 ‘그만’을 사용하는 ‘명시적 수행 표현 사용하기’이다. 응답자 중 19명(여성 12회, 남성 7회)이 사용하였다. 금지부사는 금지 강도가 높고 잘못 사용하면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진 행위의 금지이므로 의도적으로 강한 금지를 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된 듯하다. 특히 여성들은 ‘금지입니다, 금지요요’와 같은 ‘명시적 수행 표현 사용하기’ 전략을 선호했는데 이렇게 어휘 ‘금지’를 직접 사용하여 금지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기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특히 여성들이 사용했다는 것은, 여성의 의도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즉 힘의 크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금지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전략일 수 있다. 의도적인 전략 사용은 남성들이 선호한 전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비관습적, 우회적’ 전략을 선호하였다. 우회적 전략 중에는 학점, 감점, 퇴실 등 협박하기

8) 그런데 실제로는 주화행 수행에 여러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고, 주화행 전략으로 사용된 전략이 보조화행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조화행 전략으로만 사용되는 전략은 <표>로 제시하지 않는다.

9) 100명의 응답자 중 4명은 무응답, 장난 대답 등으로 인해 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등 지시 강도가 높은 전략도 많았는데, 이는 여성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전략이다.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원칙을 돌려서 제시하기 등 간접적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전략도 사용되었다.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화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10> [명령] 상황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 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 서법에 의한 도출	금지의 명령형 어미 사용하기(-지 마세요)
		금지 부사 언급하기 (‘그만’ 사용)
	<2> 명시적 수행 표현	규칙 제시하기 (어휘 ‘금지’ 사용)
		행위동사 사용하기 (끄세요, 중단하세요)
관습적, 우회적	<3>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부정 부사 사용하기 (-으면 안 돼요/못 해요)
	<6> 예비적 조건 언급	청자 의지 묻기(중단해 주시겠어요?)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대안 제시(나가세요, 피시방 가세요) 규칙 준수 돌려서 강조하기 사정 설명하기 원칙을 돌려 제시하기 청자의 행위 되묻기(몇 시간째인지 아세요?게임은 이미 충분하지 않나?) 불이익으로 협박하기(학점,감점,퇴실)

이 상황에 사용된 보조화행 전략은 네 가지 (부름말 사용하기, 핑계 대어 금지 이유 설명하기, 직접 부탁하기, 규칙 확인시키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부름말은 ‘학생, 저기(요), 야, 거기, 애, 어이’가 나타났으며, 응답자 96명 중 33명이 사용했는데(34.4%), 이때의 부름말은 청자의 체면 손상을 덜어주려는 의도보다 주의 환기나 청자 신분 확인으로 화자의 힘의 크기를 재확인시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또 ‘곧 수업이 있다, 컴퓨터를 꺼야 한다’ 등 핑계 대어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전략이 2회, ‘부탁드립니다, 제발’과 같이 명령임에도 부탁의 발화로 청자 체면 위협 감소 전략도 2회 나타났다. 우회적으로 규칙 확인시키기 전략(2회 사용)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닌 ‘수업 용도로만 사용하

라, 과제 관련 일만 처리하라’ 등 간접적으로 게임 금지를 지시하는 전략이다.

이제 [명령]에서 한국어 화자들의 화행 전략 패턴을 살펴본다. 이 때 전략 사용 패턴은 매우 간단하다. 무브 1개 혹은 부름말과 함께 2개의 무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게임하시면 안 돼요’ 처럼 무브 1개를 사용한 경우는 34회였으며, 부름말과 함께 무브 2개를 사용한 경우는 19회였다. 즉,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이렇게 간단한 금지화행 전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의 경우, 한국어 화자가 가장 선호한 전략의 패턴은 보조전략(부름말)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전략 패턴 1. ([부름말])+[명시적 수행 표현]
 - (예) (학생,) 게임 그만 하세요.
 - (저기요,) 컴퓨터실에서 게임은 금지입니다.
- 전략 패턴 2. ([부름말])+[비화행의미로부터 도출(원칙제시)]
 - (예) (학생,) 여기서 게임하시면 안 돼요.

(2) [요청]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전술했듯이 한국어에서 [요청]의 금지 화행은 친한 관계일 때와 소원한 관계일 때 모두 잘 나타나는 기능이다. [요청]에서는 화청자 간의 친소관계에 따라 사용되는 전략을 각각 분석한다.

(2)-1. 화청자가 소원한 관계일 때: 영화관 뒷자리 여고생에게 의자를 차지 말 것을 요청

[요청]은 청자의 체면이나 부담 등이 관여되어 실제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며, 비언어적 수단으로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황에서는 ‘서법에 의한 도출’(예:차지 말아 주세요, 차지 마세요)이 가장 많았는데, 96명 중 49명이 주화행 전략으로 사용하였다(51%).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전략은, 청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청자의 의지 및 수행 능력을 묻는 ‘예비적 조건 언급’으로 총 16회 나타났다(16.6%).

이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주화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11> [요청-(1)]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 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서법에 의한 도출	명령형 어미(-지 말아 주세요/마세요)
	<2>명시적 수행 표현	금지 부사 ‘그만’ 사용 행위동사 사용 (조심해 주세요)
관습적, 우회적	<4>화자 의도 언급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예비적 조건 언급	①청자의 허락 구하기(-면 안 될까요?) ②청자의 의지 묻기(-아/어 주(시)래요?/-겠어요?) ③청자 수행 능력 묻기(-리 수 있어요?)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화자의 상황 설명하기(방해가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수행동사 생략(발 좀, 발 줌요, 의자 좀) 농담하기(다리가 예쁜데?) 나무라기(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기타		(말 없이 그냥 뒤돌아 본다.) (뒤 돌아 보며 살짝 불쾌한 표정)

이 상황에서 전략의 중요한 특징은 보조화행 전략으로 ‘부름말 사용’과 ‘사과하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96명의 응답자 중 46명이 ‘저기요, 저기, 저’와 같은 부름말로 발화를 시작했고, ‘죄송한데, 죄송하지만’과 같은 ‘사과하기’도 33명이 사용했으며, 두 전략을 모두 사용한 경우도 14명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화자들은 낯선 사람에게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먼저 부름말로 주의를 끌거나 사과를 하여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이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나타나는 보조화행 전략의 특징은 부사 ‘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좀’은 화자의 공손성을 드러내어 청자의 체면 손상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보조화행 전략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의 전략 사용 패턴은 비교적 간단하여, 사용된 평균 무브의 수도 [명령] 다음으로 적다. ‘서법에 의한 도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부사 ‘좀’을 포함하는 ‘공손성 나타내기’ 전략이 필수적으로 동반된

다. 그리고 주화행 전략 앞에 ‘저기요’와 ‘죄송한데요’와 같은 보조화행 전략이 사용된다.

한국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 전략 패턴1.
 ([부름말]+ [공손성 부사 사용]+ [서법에 의한 도출]
 (예) 저기요, 의자 좀 차지 말아 주세요.
- 전략 패턴2.
 ([사과하기]+ [공손성 부사 사용]+ [서법에 의한 도출]
 (예) 죄송한데요, 의자 좀 차지 말아 주세요.
- 전략 패턴3.
 ([부름말]+ [사과하기]+[공손성 부사 사용]+ [서법에 의한 도출]
 (예) 저기요, 죄송하지만... 의자 좀 차지 말아 주세요.

(2)-2. 화청자 관계가 친한 관계일 때: 후배에게 동아리방 벽에 사진 붙이지 말 것을 요청

사용된 전략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전략은 이유의 연결어미를 사용해 금지 이유를 말하는 전략이다. 응답자 100명 중 51명이 사용했다(51%). 또 단순히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이 많았는데 ‘제안성 어구 사용’은 25회(25%), ‘화자 의도 언급’도 9회 사용(9%)되었다. 이 전략들은 모두 청자의 체면을 상당히 고려하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낯선 청자에게 금지를 [요청]할 때 주화행 전략으로 사용되던 ‘서법에 의한 도출’은 사용빈도가 높지 않음(11%)을 알 수 있다.

<표12> [요청-(2)]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서법에 의한 도출	명령형 어미(붙이지 마라)
	<2>명시적 수행 표현	행위동사 사용하기 (떼라, 떼어 내라)
관습적, 우회적	<3>발화의미로부터 도출	부정 부사 사용 (-면 안 돼)
	<4> 화자 의도 언급	-으면 좋겠다.-는 게 좋겠는데
	<5> 제안성 어구	붙이지 말자. 떼는 게 어떨까?,
	<6> 예비적 조건 언급	① 청자의 허락 구하기 ② 청자 의지 묻기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금지 이유 제시(어수선훘 보인다. 지저분한데, 정성없다.) 기타(이런 건 상의해야지, 논의하도록 하자. 안 땠 거면 밥 사)

이때 ‘부름말’은 24회 사용되었는데(24%), 여성은 16명의 응답자 모두 ‘OO야’로 불렀고, 남성 5명은 ‘야!’, 3명은 이름을 불렀다. 또 청자 행위에 대해 일단 동감해 주는 전략이 3회 나타났고, 그 외의 보조화행 전략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가장 선호한 전략은 ‘금지 이유 제시하기’이며 주화행 전략은 ‘대안 제시하기’이고, ‘부름말 사용’이 청자를 고려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전략 패턴1.
([부름말]+[금지 이유 제시하기]+[단서제공(대안 제시)])
(예) (OO야,) 사진을 벽에 붙이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앨범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 전략 패턴2.
([부름말]+ [금지 이유 제시하기]+[화자 의도 언급하기])
(예)(OO야,) 어수선훘 보이니까, 사진을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와 같이 금지화행의 [요청]기능 수행의 경우, 화청자의 친소 관계에 따라 한국인들의 전략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원한 관계의 청자에게 금지를 [요청]할 때는 공손성을 포함하고 서법을 사용해 금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한 관계의 청자에게는 친분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청자 체면을 많이 고려하는 우회적 전략들이 선호되었다.

(3) [권유]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후배에게 복사 가게 들르지 말라고 말하기 [권유]는 주로 친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인데,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된 전략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간단하다. 금지하는 행위의 수행이 필요 없음을 언급하는(예:안 들러도 돼) ‘예비적 조건 언급’이 32회로 주화행 전략 중 높은 사용 빈도(32%)를 나타냈다. 그밖에 행위를 금지했을 때 청자가 취해야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전략(예: 그냥 와)이 24회였고(24%),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서법에 의한 도출’(예:들르지 마)도 최저의 사용빈도(10%)를 보였다.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13> [권유]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 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서법에 의한 도출	명령형 어미(들르지 마, 오지 마)
	<2>명시적 수행 표현	청자 수행 행위 지시(그냥 와)
관습적, 우회적	<6> 예비적 조건 언급	수행 불필요성 언급 (안 들러도 돼, 안 와도 돼, 들를 필요 없어.)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화자 의지 언급(내가 가져갈게)

이 상황에서 거의 모든 발화에 사용된 전략은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단서 제공하기’였는데(96%), 주로 보조화행 전략으로 나타난다. 행위 금지 이유를 설명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배려로 여겨진다. 이때 ‘부름말’은 30명이 사용했는데(30%), 보통 청자 이름에 호격조사를 붙여 ‘OO아/야’를 사용했고 여성 1명과 남성 5명은 ‘야!’를 사용하였다. 이때의 부름말은 청자의 체면 위협 감소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주의 환기 정도의 기능을 한다.

이제 한국어 화자들의 전략 사용 패턴을 살펴본다. 이때는 거의 ‘이유 제시하기’와 함께 ‘예비적 조건 언급’이나 ‘명시적 수행 표현하기’ 전략이 사용된다. 그리고 30% 정도 한국어 화자들은 부름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략 패턴1.
 ([부름말]+[단서 제공(이유 제시)]+[예비적 조건 언급(청자 행위 수행 불필요 언급)])
 예)(OO야), 내가 복사물 대신 찾아갈 테니까 복사가게 안 와도 돼.

■ 전략 패턴2.
 ([부름말]+[단서 제공(이유 제시)]+[명시적 수행 표현(수행 행위 지시)])
 예) (OO야), 내가 복사물 대신 찾아갈 테니까 그냥 강의실로 가.

(4) [부탁]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직장 상사에게 회식 때 노래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기

[부탁]은 요청에 비해 화자의 간절함이 더해지며,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상황이다¹⁰⁾. 이 상황에서 많은 한국어 화자들은 간접적인 전략을 선호하였는데, 이들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서’와 같이 이유를 제시하는 ‘단서 제공’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85.6%). 그리고 이 전략과 함께, 요청에 대한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예비적 조건 언급’ 전략이 29회 나타났다(29.8%), 대안을 제시하여 부탁하는 전략도 22회 사용되었다(22.6%). 그런데 응답 중에는 전략 사용 없이 자신의 의사만 분명히 표시하여 금지를 유도하는 전략도 나타났다(10.3%). 즉 ‘저 정말 노래하기 싫어요’와 같은 발화로, 노래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남성들이 선호했는데 공손성이 느껴지지는 않는데도 금지를 부탁할 때에 사용되었다. 또 ‘서법에 의한 도출’은 총 6회 나타나(6.1%), 한국인들은 [부탁]기능 수행 시 명령형어미 사용을 선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응답자 중에는 ‘슬쩍 자리를 피한다’ ‘상사에게 노래시키지 말라는 말은 절대 못 하겠다’ 등 응답의 회피도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지 3개는 제외하고 97개의 응답만 분석하였다.

<표14> [부탁]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 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 서법에 의한 도출	명령형어미(시키지 말아주세요)
	<2> 명시적 수행 표현	수행동사 사용(부탁드립니다)
관습적, 우회적	<4> 화자 의도 언급	희망 표현 사용하기(-으면 합니다/좋겠습니다)
	<6> 예비적 조건 언급	(요청에 대한)청자의 허락(안 -으면 안 될까요?)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이유 제시(노래 진짜 못 부르거든요. 너무 못해서) 대안 제시하기(춤 출게요,) 의사 표현하기(하기 싫어요)

보조화행 전략으로 ‘부름말 사용하기, 사과하기’는 두 전략 모두 여성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다. ‘부름말 사용’ 전략은 응답자의 28.8%(여성18명, 남성10명)가 사용했고, ‘죄송하지만’ 등 ‘사과하기’ 전략은 응답자의 16%정도(여성13명, 남성3명)가 사용했다.

이제 [부탁]에서의 전략 사용 패턴을 정리해 본다. 이때는 노래를 못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또 이유 설명과 함께 단서 제공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부름말이나 사과하기 전략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 전략 패턴1.
 ([부름말]+ ([사과하기])+ [단서 제공(이유 제시)]+ [예비적 조건 언급(청자 허락)])
 (예)(팀장님),(죄송하지만)제가 정말 노래를 못해서 그러는데요...노래 안 부르면 안 될까요?
- 전략 패턴2.
 ([부름말]+ ([사과하기])+ [단서 제공(이유 제시)]+ [단서 제공(대안 제시)])
 (예)(팀장님),(죄송하지만) 노래를 진짜 못해서요... 노래 대신 춤을 열심히 추겠습니다.

(5) [격려/기원]기능의 금지 화행 전략 : 선배에게 과제물을 대신 제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격려]는 주로 친한 관계에서 힘의 크기에 상관없이 두루 나타나는 기능이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의 걱정을 금지하고 청자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발화로 청자를 격려하게 된다.

이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와 같이 직접 걱정을 금지하는 ‘서법에 의한 도출’ 이 주화행 전략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65.6%). 그밖에 ‘명시적인 수행 표현’, ‘대안 제시하기’ 전략도 사용되었다. 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주화행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15> [격려/기원]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지시단계	전략	세부 전략
직접적, 명시적	<1> 서법에 의한 도출	명령형 어미(걱정하지 마세요)
	<2> 명시적 수행 표현	확신주기(믿으세요, 안심해요)
비관습적, 우회적	<7> 단서 제공	화자 의지 강조하기(꼭 제출할게요, 조심할게요) 대안 제시 (아침에 문자 한 통 주세요, 확인 전화 줘요) 기타(괜찮아, 넣어 놔어요)

이 상황에서 ‘꼭 제출할게요, 절대 안 잊어 버릴게요’등 화자의 의지 강조하기는 보조화행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51.5%), 종결어미 ‘-을게요’의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부름말’은 47명이 사용하였다(47.4%).

이제 이 상황에서 사용된 전략 패턴을 정리해 본다. [격려/기원]에서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는 전략은 ‘서법에 의한 도출’이며 ‘걱정하지 마세요’와 같이 단문 하나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다짐하는 전략이 주화행 전략 앞 또는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용된 전략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 전략 패턴1. ([부름말])+[서법에 의한 도출]+[화자의 다짐]
 (예) (선배,) 걱정 마세요. 꼭 제출할게요.(절대 안 잊어 버려요)

3.2.3. 학습자 중간언어에서의 금지화행 전략

지금까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을 기능별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제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전략과 전략 패턴을 바탕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 나타난 금지화행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학습자 중간언어에 나타난 화행 전략 양상 중 한국인과 비슷하거나 화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고, 중간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및 화행 전략 교육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고급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 어휘 오류나 문법 오류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¹¹⁾.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화행 전략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특이한 전략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차이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1) [명령]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컴퓨터실에서 학생에게 게임 금지시키기
 중국어권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난 화행 전략 중 특이한 점은, 개인에게 금지를 명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형식으로 화행을 수행하는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얘들아, 게임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와 같은 발화를 통해, 특정인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 개인의 체면 손상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인 화자들에게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전략이다. 이는 특정한 한 명 때문에 전체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니까’와 ‘-아/어서’의 연결 어미 오류, 주격 조사 오류가 소수 발견되기는 했으나 화행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본 논의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2)-1. 화청자가 소원한 관계일 때: 영화관 뒷자리 여고생에게 의자를 차지 말 것을 요청

이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화행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사용한 전략 중 특이한 것은 ‘인사하기’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발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거나, 의자를 차지 말라는 금지를 요청한 이후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전략이다.

또한 ‘당신 때문에 영화에 집중이 안 돼요’, ‘당신이 의자를 발로 차서...’와 같이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지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지화행은 대부분 2인칭 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지화행의 다른 기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들은 ‘당신’이라는 어휘를, 단지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자는 여고생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지칭어의 사용이 더 어색하고, 또 학습자가 갈등 고조의 의도로 발화했을 가능성은 더 낮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오류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에는 분명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당신’의 화용적 기능을 정확히 안다면, 갈등 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금지 화행에서 이러한 지칭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2. 화청자 관계가 친한 관계일 때: 후배에게 동아리방 벽에 사진 붙이지 말 것을 요청

이 상황에서 화행 전략의 사용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학습자들은 청자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높임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류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 화자들은 이 상황에서 후배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데 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후배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나타났다. 후배에게 어울리지 않는 합쇼체를 쓴다거나 해체와 합쇼체의 부적절한 혼용(금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하자.), 호칭어와의 호응 오류(OO야, 불

이지 마세요) 등이 구체적인 예가 된다. 물론 후배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거나 화계를 부적절하게 교체해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유창한 화행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높임법 체계를 알고 있지만, 대학교 동아리의 선후배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금지화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배에 대한 적절한 화계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적절한 화계의 교체는 한국어 화계의 혼용 현상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금지화행 수행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전략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높임법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권유]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후배에게 복사 가게 들르지 말라고 말하기
이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거의 비슷한 화행 수행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사용 양상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4) [부탁]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직장 상사에게 회식 때 노래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기

이 상황에서 학습자 집단의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은 한국어 화자 집단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사용 패턴은 한국어 화자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화자들은 ‘이유 설명하기’와 함께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예비적 조건 언급하기’를 사용하는 패턴이 가장 많았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유 설명하기’와 함께 ‘예비적 조건 언급하기’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13.5%에 불과하였다.

(5) [격려/기원]기능의 금지화행 전략 : 선배에게 과제물 대신 제출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이 상황에서 학습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은 한국어 화자 집단의 사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단, 학습자 집단의 중간언어에서 한국어 화자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발화의 양이 많았다. 그러나 [+청자이익]의 상황에서 청자를 격려

하기 위한 발화의 양이 많다는 것은 화행 수행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화자들은 성별에 따라 사용한 무브 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반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 간접화행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간접화행 교육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간접화행이 많은 금지화행 교수 학습을 위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화행 교육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보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금지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정밀히 밝혀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어학 분야에서도 금지화행, 특히 화행 전략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단독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는 그 자체로 국어학 분야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측면에서도 이 연구 결과는 금지화행 전략의 교육 내용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교재나 교육 자료에 기능별로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략 패턴을 반영하여, 실제성 있는 대화문 구성 등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난 화행전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화행 전략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는 [기원/격려]기능과 [명령]기능 수행 시에 무브 수가 많이 나타났다. [기원/격려]는 청자를 격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발화이므로 긴 발화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명령]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의 화행 수행 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브 수 분석 결과 한국인들은 규칙 사항을 금지하는 [명령]기능 수행 시, 간단한 서법을 사용하여 짧게 발

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명령]의 경우 짧고 명확히 금지를 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고급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 중에는 한 개인의 행위 금지를 [명령]할 때, 청자의 체면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발화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전략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인 한 명 때문에 집단 전체에게 방해가 되는 발화 행위를 꺼려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 역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습자는 금지화행 수행을 위해 청자를 배려해서 높임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류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높임법 체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화행 수행 시 높임법을 정확히 사용하는 데에는 미숙했던 것이다. 학문목적 학습자의 경우 대학의 인간관계 문화나 선후배 또는 동기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높임법 사용 전략을 자세히 교수하여 원활한 금지화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낯선 청자에게 어떤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때 학습자 중간언어에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이 전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인사를 했을 때 어색하게 느끼게 된다. 고급 학습자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로 효과적인 금지 화행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화행 전략을 살펴보고 교수 내용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비교 대상을 타 언어권 학습자들로 확대한다면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란(1999),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방법”, 한국어교육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1-193.
- 성은실(2010), “한국어 금지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2012), “한국어 금지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희(2014), “한국어 간접 지시 화행 교육의 실태와 교재 구성 방안”, 문법교육20, 한국문법교육학회, 271-295.
- 이은희(2014), 한국어 화행교육론, 한국문화사.
- 이준희(2001), “명령문의 간접화행”, 한국어의미학8, 한국어의미학회, 279-290.
-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85-208.
- 柏崎雅世(1993), 日本語における行爲指示型 表現の機能, 日本語教育基礎研究シリーズ 1, くろしお出版.
- 加藤重廣(2004), 日本語語用論のしくみ, 東京: 研究社.
- 大平佳和(1999), “行爲指示型疑問文の依頼用法にする一考察.” 英山論叢, 24-40.
- 森田良行(1989), “話す行爲を表わすことばとその意味体系”, 日本語學 11.
- 態谷智子(1997), “はたらきかけのやりとりとしての會話-特徴の東という形でみた會話機能-” 對話と知 —談話の認知科學入門-, 新耀社.
- Blum-Kulka, House and Kasper (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 Variant in Requesting Behavior”.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이은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고원대학교 제2대학 국어교육학과

28173

전자 우편: yeh90@korea.ac.kr

원고 접수일: 2015년 8월 10일

원고 수정일: 2015년 9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18일